

‘국가예산 3천억 시대 열자’

완주군, 매일 중앙부처 일제출장 등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완주군이 2017년 국가예산 3천억 시대 돌파를 위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완주군은 전 부서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시작으로 전북도 정치권 방문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7년 신규 국가예산으로 발굴된 188개 사업(국비 1조 4727억원 규모)을 중심으로 매일 전 부서 중앙부처 일제출장계획을 수립, 국비 확보를 위한 발품행보를 통해 목표한 국비가 최종 확보될 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끈질길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이날 군은 20개 실과단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와 대전청사 등 중앙부처를 찾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금령시생산센터건립, 상용차 전장클러스터조성사업, 국도17호 시설개량사업, 완주보건소 신축’ 등 국가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당 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달부터 2016년 군정 주요현안 및 2017년 국가예산사업에 대해서 전북도, 중앙부처, 정치권 등을 방문 완주군의 광복 행보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 전

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완주군은 민선6기 들어 국가예산 확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민선6기 들어 국가예산 2천억원 시대(2015년 2,095억원)를 열었으며,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437억원이 증가한 2,532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올해 도비(418억원)까지 포함하면 3천억원 규모 예산확보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미래 성장 발판인 2016년 신규 국가예산으로 88건에 국비 1,348억원 을 대거 확보해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16 국가예산, 신규사업 주요 확보 내역으로 ▲테크노밸리 2단계 진입 도로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유용곤 총 사육실용화 시범사업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공공도서관 건립 ▲비비레일공원 프로젝트 ▲농촌중심지 활성화(삼례, 이서) ▲삼례하리교 재가설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이다. 이를 위해 박성일 완주군수는 신규 국가예산에 대한 타당성 등 논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과감히 확대

편성해, 국가예산발굴 논리개발 연구 용역을 통해서만 6건, 국비 213억 확보함으로써 확실한 성공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정치권·중앙부처 인맥네트워크 등 공조체제 구축과 예산순기별 체계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성과를 높였으며, 특히 새누리당·새정치연합 등 여야를 넘나드는 일체적인 공조체제를 이끌어 내며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완주군 국가예산 확보의 삼두마차인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사회공헌사업 또한 전년대비 100억원이 늘어난 50건에 230억원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016년 국가예산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북도와 정치권 중앙부처 인맥네트워크 등 다각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결집해 실질적인 예산확보로 이어졌다”며, “국가예산 확보는 머리로만 따는 것이 아니라 발로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탄탄한 논리개발과 전방위적인 인맥 관리를 통해 일체적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안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보고회

복지시설 조성 등 의견 나누

무주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2015~2019, 총 사업비 58억여 원·국비 70%, 군비 30%) 기본 및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하성용 부군수를 비롯한 차용욱 총북 과장군 정현면 전 추진위원장과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안성면 추진위원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2019년까지 안성면 정거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현황분석, 기본구상, 사업과 투자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문화복지시설(복합어울림센터)을 조성하고 차량통행을 비롯한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

초생활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며,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전선로 지중화와 간판정비, 낙화놀이 테마원 조성(전통문화놀이 계승을 통한 지역특화콘텐츠를 육성), 단지봉 산책로를 조성(주민 건강증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주민, 리더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홍보마케팅과 컨설팅도 진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건설교통과 조영자 도시개발 담당은 “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교육과 의료, 문화 복지, 경제 등 기능을 확충하고 교육을 통한 주민들의 역할과 기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존의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사업 추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 ‘군민과의 희망대화’ 마쳐

11개 읍·면 순회 민생현장 찾아 애로사항 수렴

이항로 진안군수는 2일 마령면을 끝으로 올해 2016년 군민과의 희망대화를 많은 군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리에 마쳤다.

지난 1월 25일부터 상전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군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 행정을 펼치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정화경지기기, 마이스개발, 부자진안 만들기” 3대 역점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주천면 구봉산에 무주탑 구름다리 설치 후 최대 7,000명(1일) 이상의 등산객이 방문해 지역이 활성화 되고 있고, “진안홍삼”이 “2016년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의 브랜드”로 뽐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는 등 진안군의 성과보고도 이어졌다.

토마토 재배단지, 고설식 딸기 하우



스 등 소득사업장과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로당 등 민생현장도 함께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소를 나누었다.

이 군수는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 “미이산 부귀산 용담호를 활용한 진안군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먹거리, 놀거리, 탈거리 등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면 진안군에 많은 변화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군

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쓰레기 3NO 운동을 실생활에 실천하고, 제조제를 쓰지 않는 우렁이 농법에 동참해 주어 이제는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후대에 진안고원의 청정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안군민들은 성공한 인생이다.”고 덧붙였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는 2일 금융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주 주계파출소, 금융기관 설 방법 간담회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 소장 최석배)는 2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특별 방범활동을 추진 중에 무주읍 농협 무주군지부 8개소 금융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계파출소는 설 명절을 맞아 노인 이에는 정차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후대에 진안고원의 청정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안군민들은 성공한 인생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노령화로 거동

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위로는 물론 주변 정리 등 봉사활동을 펼치며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최석배 소장은 “금융기관 대표자에게 금융기관 안전수칙(점포내 근무시 안전수칙, 현금흐름시 안전수칙,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중요성에 대해 설 명절”면서 “특히 경비원이 상주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유급경비원 고용 등 자체 경비강화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사랑의 쌀감 나누기 ‘훈훈’

160세대에 602톤 전달

진안군은 매년 ‘술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동절기 난방용 쌀감을 지원하는 ‘사랑의 쌀감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랑의 쌀감 나누기’는 동절기 에너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기초

생활 수급권자 등에게 난방용 쌀감을 지원해 난방비 절감에 보탬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각 읍·면에서 36세대를 추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대 당 1.5톤씩 총 54톤의 난방용 쌀감을 설 연휴 전인 5월까지 직접 대상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며,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동안 총 160세대에 602톤의 쌀감을 지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완주군, 설맞이 명절자금 124억 집행 지역경기 부양

완주군은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소요자금을 설 명절 전에 집행할 계획이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설 명절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각종 공사 및 물품대금 67억원,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등 각종 보조금 25억원, 경상비 및 기타자금 33억원 등 총 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은 각종 공사와 물품 대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각종 사업의 계약업체에 대해 선금을 최대한 지급토록 하는 등 자금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과 도입의 체불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이 미지급된 현장에 대하여는 자금집행을 독려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하며 어려운 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 안성파출소, 미귀가 치매노인 구조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안성파출소(소장 정광훈)에 근무하는 고지영, 백경민 경위는 최근 안성면 공정리 장내마을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을 귀가 조치해 주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안성파출소 고지영, 백경민 경위는 이날 노인 미귀가 신고를 접수한 이후 유근대(88세, 남)씨가 출타 후 현 재까지 귀가치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이날 처 김분순씨를 만나 유근대씨가 검정색 바지, 검정색 점퍼를 착용했다는 인상착의를 확인 후 마을 방송을 실시 하고 마을주변 수색 실시했다.

이날 영하의 날씨에 눈이 내리면서 어두워지고 있어 자칫 시간이 늦어지면 저 체온 증 등 사고가 우려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안성면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등 수색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안성면자율방범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미귀가가 발견 시 신고 요청을 했다.

고지영, 백경민 경위는 치매노인의 인상착의에서 검정색바지,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있음을 지나치지 않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치매를 알고 있던 미귀가지임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무사히 모셔다 드려 치매노인은 안전귀가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읍, 건전 졸업식 문화 조성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2일, 백화여고 전교생(170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한 ‘강남’ 문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학교전담경찰관 김중주 경위는 졸업식 준비로 강당에 모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사례와 감악적 졸업

식 뒤풀이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앞장서서 감악적 뒤풀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했다.

김경위는 “발가루를 교복에 뿌리는 등 교복훼손 행위들을 단순한 졸업식 관례로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졸업식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같은 설명회가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립관리소

무주군, 유기질비료 공급

무주군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총 90여만 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군은 사전 신청을 받았던 3,578농가를 대상으로 혼합유비료와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족 분 퇴비와 퇴비 등 부속 유기질비료 2종을 공급한다.

군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는 총 14억여 원이 투입되며 1포대(20kg)당 국비 1,000원, 군비 600원, 농협 환원금 400원이 지원된다.

군 농업소득과 친환경농업 신장호 담당은 “영농 전 적기 공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써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근상 진안부군수, 성수면

방역초소 방문 방한복 전달

이근상 진안군부군수는 2일 성수면 풍혈면천 거점소독장소를 방문, 거점소독장소 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10년 만에 찾아온 한파에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따뜻한 방한복 6벌은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근상 부군수는 “전라북도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는 것은 근무자들의 적극적인 근무로부터 시작되었다”며 “앞으로도 청정 진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군, 마을회관 신축·보수

장수군이 복지농촌 조성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회관·모정 신축 및 보수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2일 오후 2시 장수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올해 마을회관·모정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28개 마을 대표자와 읍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군에 따르면 올해 마을회관·모정 지원사업은 마을회관신축 4동, 모정신축 3동, 회관보수 15동 등 28개 마을 2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8천7백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대상마을을 확정했으며 올해 처음 도입된 ‘마을회관·모정 설계도서 작성지원’ 사업으로 2월중 보수공사 내역서를 작성해 각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진화대 발대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이 2일 진행됐다. 발대식에는 진화대원 및 직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불 방지 다짐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됐다.

또한 밀착형 감시카메라를 통한 방송 및 문구 송출로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GIS신고 단말기 및 산불신고 앱 등을 활용한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계획도 밝혔다.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